“상 놓은 자리에 ‘불교미술 미래’ 있다”

〈像〉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7월 5일 기념 학술대회 개최
유진 왕 하버드대 교수 강연

불교미술 미래 방향성 제시
“고정 · 전통적인 형상 아닌
흐름, 관계 속에 미래 있어”



유진 왕(Eugene Wang)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7월 5일 열린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미술의 미래는 고정된 형상이나 전통적 도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흐름 속에 있으며 삶 자체의 움직임 속에 있다.”

세계적 불교미술사학 석학인 유진 왕(Eugene Wang)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는 7월 5일 열린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불교미술 미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불교미술의 미래는 무엇인가(What is the Future of Buddhist Art)’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왕 교수는 “불교미술이 승리와 위기의 지점에 동시에 서 있음”을 진단하며 불교미술의 세계 흐름을 조명했다. 왕 교수는 독일의 주택가 정원, 미국 플로리다 집 앞마당까지 부처상이 넘쳐나는 것을 예로 들며 “불교미술이 세계적으로 영적 실천의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등 아시아에서 불상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전시되거나 현지 사찰에서 신앙으로 대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왕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왕 교수는 “불상은 전 세계적인 미적 ‘링구아 프랑카(língua franca·공용어)’가 됐지만, 불교미술은 이제 역사적 기억과 문화유산이 돼 버렸다”면서 “불교미술은 현대에 들어와 제 기능을 다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가 평가한 현대 시기 제대로 된 불교미술 작품은 故백남준(1932~2006)의 작품 ‘TV붓다’(1974) 정도다.

왕 교수는 불교미술의 미래는 더 이상 ‘도상(Icon)’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영국 미학자 허버트 리드의 ‘삶의 리듬(Rhythm of Life)’ 개념을 중심으로, 불상 없이도 불교적 세계관을 시각화한 중국계 화가 아이린 초우(Irene Chou)의 회화 작품 ‘보라색 우주’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초우의 회화는 고전적인 불교 상징 대신 ‘우주적 흐름과 생명 에너지’를 먹과 곡선의 리듬으로 구현함으로써 에너지의 맥동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주가 되는 순간을 그려낸다.

이에 왕 교수는 “초우의 ‘보라색 우주’는 단지 우주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불이(不二)’라는 불교적 세계관의 회화적 구현”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이제 불교미술은 형상이나 도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과정과 흐름,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이 21세기 불교미술의 가능성”이라며 “정적인 상(像)으로서 불상이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으로 구현되는 불성(佛性), 유기적 흐름으로 재현되는 마음의 상태로 불교미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교 전통 미술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된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는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각 스님이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김연미(이화여대)·신광희(충북대)·엄기표(단국대)·서지민(충북대)·이승혜(동아대)·김현중(전남대)·김자현(동국대) 교수 등 전문학자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복제본으로 돌아온다

日관음사, 7월 6일 부석사 찾아
3D 스캔자료, 복제동의서 전달
자료 통해 복제본 3점 제작해
부석사, 환수博 등에 봉안 예정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으로 넘어간 뒤 647년 만에 돌아왔다가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일본에 반환됐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이 복제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일본 쓰시마 관음사 전 주지 다나카 세코 스님은 7월 6일 서산 부석사를 찾아 관음상 3D스캔 자료와 복제 동의서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서산 부석사 회주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지 원우 스님과 다나카 세코 스님, 이상근 문화유산환수연대 이사장, 이현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교류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2012년 장물로 국내로 반입됐으며 도굴범들이 체포된 후 이뤄진 조사에서 원(原)봉안처가 서산 부석사임이 알려지며 도난과 환수 사이에서 논란을 겪게 됐다. 이후 7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일본 반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정부와 일본 관음사와 합의해 지난 1월 25일부터 100일 동안 친견법회를 봉행했고 5월 10일 일본으로 반환됐다. 일본 관음사는 5월 12일 법요식을 열고 반환을 알렸고, 이후 관음상은 쓰시마 박물관에 수장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서산 부석사는 일본 관음사 측에 관음상 복제본 제작 동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그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관음사가 입장을 바꿔 복제본 제작에 동의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 관음상의 3D 스캔 파일과 복제동의서가 부석사에 전해지게 됐다.

다나카 세코 스님은 “지난 5월 10일 이운법회 당시 마주한 한국 불자들의 눈물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잊을 수 없었다. 이에 부석사를 위한 3D스캔과 복제 동의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승낙받았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한국과 일본 불자들에게 모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석사 회주 주경 스님은 “관음상은 일본 관음사로 돌아갔지만 똑같은 모양의 복제본 관음상이라도 모시고 싶어 하는 게 한국 및 서산 부석사 불자들의 소원이었다”면서 “한일 양국 불교계의 불심과 신뢰로 원만하게 관음상 복제본을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복제를 위한 3D스캔자료가 전달되고, 복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서산 부석사 관음상 복제본 제작이 진행된다. 관음상 복제본은 3점이 제작돼 서산 부석사와 아산 환수문화기념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각각 봉안될 예정이다. 봉안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달식에 배석했던 이상근 문화유산환수연대 이사장(환수기념박물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음상 복제본이 돌아온 것으로 끝이 아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해 일본 향토사료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복장물의 공개도 관음사에 요청했다”면 “1978년 일본에서 발간된 〈대마의 미술〉 책자에 복장 자료가 확인되는데 지금은 복장물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이사장은 “최종 목표는 진본 관음상의 환지본처”라며 “일본 쓰시마 박물관에 약탈품을 수장하지 말 것과 양국 선린 외교를 위해서라도 본래 자리도 관음상을 돌려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② 일수사견

집착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一水四見

조선시대 학자 성현(1439~1504)은 세간의 야사, 풍속, 기이한 일화, 해학과 애정담 등을 모아 〈용재총화〉를 편찬했다. 제8권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 있다.

어느 날 성현이 경복궁 안으로 날아든 까마귀를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느낌을 물었다. 궁녀는 이를 불길한 징조라며 얼굴을 찌푸렸고, 의관은 까마귀의 간이 약재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도화서 화가는 깃털의 윤기와 형태가 그림 그리기에 좋다고 했으며, 한 시인은 훌륭한 시적 소재라고 반겼다. 하나의 까마귀를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이 나왔던 것이다. 이를 두고 ‘동물이관(同物異觀)’이라 한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다. 바로 ‘일수사견(一水四見)’이다. 하나의 물을 네 존재가 각각 다르게 본다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천상의 중생에게는 수정으로 된 궁전, 물고기에게는 삶의 터전, 탐욕에 물든 아귀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 이는 유식불교의 〈성유식론〉 제8권에서, 사견과 집착으로 인해 사물을 왜곡해 인식하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도 지각(perception)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사물과 사건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까? 마음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인데, 왜 작동 방식은 제각각일까? 〈화엄경〉 ‘보살문명품’에서 문수보살이 묻는다.

“불자여, 마음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생겨나나이까?”

이에 각수보살은 “중생이 지닌 ‘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業)은 단지 전생의 죄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의 방향성과 의도, 그것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등, 가치와 욕구에 따라 형성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각자가 지닌 의도와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수사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지와 욕탐이 빚어낸 사견과 집착,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라는 것이다. 자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과 해석을 존중하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증편향과 혐오, 갈라치기와 배제가 만연한 오늘날,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준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